

2021년 1월 21일(목)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 1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양 보혈을 흘렸네
- 2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 3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 4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 후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1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 2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 3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 후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1월 22일(금) 기도 담당 : 정준수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51장 다 함 께

기 도 김덕만 집사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2:18~27 인 도 자

설 교 .. 『성도의 사명과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함 께

찬 송 452장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사도신경 강해 본문 및 설교 제목 >

요 일	본 문	제 목
1월 19일(화)	요 14:16-18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1월 20일(수)	엡 4:1-6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1월 21일(목)	고전 12:18-27	성도의 사명과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1월 22일(금)	골 3:1-4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1년 1월 21일(목)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장중에 보호하시고, 이른아침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칠 때에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형제자매로 부르시사 교제하며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가 연합하는 것이 주님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됨을 가슴에 품고(시 133:1) 한 몸과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연이은 한파로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된 자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제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웃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께서 허락하신 목회 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사랑과 지혜와 용기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새문안교회를 아끼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얼어붙은 북녘의 땅도 주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